

# 憤怒에 對한 研究

金 龍 燮\*

## 目 次

- I. 序 論
  - I-1. 問題의 提起 및 研究의 課題
  - I-2. 研究의 範圍, 方法 및 限界
- II. 情的機能의 種類
  - II-1. 感情
  - II-2. 情緒
  - II-3. 氣分
  - II-4. 情操
- III. 憤怒의 源泉과 種類
  - III-1. 憤怒의 源泉-情緒의 分化, 發達
  - III-2. 憤怒를 일으키는 要因들
  - III-3. 憤怒의 種類
- IV. 憤怒의 表現과 影響
  - IV-1. 憤怒의 表現樣相들
  - IV-2. 憤怒의 影響과 結果
- V. 憤怒에 對한 聖經의 教訓과 크리스찬의 憤怒
  - V-1. 憤怒에 對한 聖經의 教訓
  - V-2. 크리스찬의 憤怒
- VI. 結 語
- 參考文獻

\* 教授

## I. 序 論

## I - 1. 問題의 提起 및 研究의 課題

人間의 精神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知(knowing), 情(feeling), 意(willing)의 機能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人間과 動物을 根本的으로 區別짓게 하는 本質的 要素들로서 이들의 作用으로 人間은 人間다운 生을 營爲하게 된다. 이 세가지 機能들은 人間이 살아가는데 있어 그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되는 것들이지만 이 中에서 人間의 生活에 가장 크게 作用하는 것은 情的 機能(faculty of feeling)이다. 喜, 怒, 哀, 樂, 愛, 惡, 欲 등으로 表現되는 情的機能은 人間의 精神生活를 豊饒롭고 潤澤하게 해 주기도 하고, 反對로 刻薄하고 硬直스럽게 해 주기도 하는 源泉이다.

우리의 論議의 主題인 憤怒(anger)라고 하는 心理的 作用은 人間의 情緒의 發達에 있어서 가장 일적 分化해 나타나는 情緒의 한 因子요 한 側面으로서 正常的인 사람은 日常生活의 渦 中에서 자칫하면 화를 내기 일수이고 憤怒에 사로잡히기 마련이다. 화를 내고 憤怒를 爆發함으로써 우리는 人間關係에서 흔히 그 무엇을 얻기 보다는 많은 것을 잃곤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더러는 自身도 모르게 이 화와 憤怒의 奴隸가 된다. 그러면 憤怒라고 하는 가장 普遍的인 情緒作用을 일으키는 要因은 무엇이고, 이 憤怒에는 어떠한 性質의 것들이 있고, 또 이들은 普通 어떠한 形態로 表現되며, 그것이 물고오는 結果는 무엇인가? 그리고 成熟한 人格者로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基督教 信仰人으로서 우리는 人間의 가장 本能的이고 普遍的인 情緒反應의 하나인 이 憤怒에 對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憤怒를 일으키는 要因이 있다면 그것은 果然 무엇이어야 하고, 이러한 心理的 衝動에 對해 우리는 어떻게 對處해야 할 것인가? 이에 對해 聖經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는 本 研究에서 憤怒라고 하는 主題를 中心으로 해서 論考될 수 있는 許多한 問題들 中에서 위에 들은 諸 側面들에 對해 考察해 보고자 한다.

## I - 2. 研究의 範圍, 方法 및 限界

本 主題에 對해서 徹底한 究明을 하려면 우선 우리의 精神機能中 情的 側面인 感情(feeling), 情緒(emotion), 氣分(mood), 情操(sentiment) 등의 概念과 機能들 相互間의 差異에 對한 檢討는 勿論, 憤怒와 함께 그 領域을 같이 하고 있는 情緒의 다른 因子들인 恐怖(fear)나, 愛情(love)이나, 嫌惡(disgust)나, 嫉妬(jealousy) 등 人間의 基本的이고도 普遍的인 心理現象이나 作用에 對한 詳細한 論考도 必須不可缺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本 研究에서 廣範圍한 이들 關聯領域들에 對한 體系的인 探索을 試圖치는 않는다. 다만 이들 諸 關心領域들에 對해서는 極히 簡略하게 注意를 기울임으로써 우리의 主題에 對한 研究에 있어서의 하나의 必要한 節次,

過程을 딛고 지나간다고 하는 意味만을 살리고자 한다.

憤怒라고 하는 本 主題 自體의 究明에 있어서도 이것이 心理學的 領域에 屬하는 問題인 以上 이의 徹底를 期하려면 實際事項들에 對한 實驗的 研究 등을 包含해서 아주 多樣스러운 研究節次를 必要로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現實條件下에서 實驗的 研究와 같은 節次는 하나의 希望事項으로 미루기로 하고 本 研究에서 우리는 入手할 수 있는 文獻 等 參考資料들을 바탕으로 해서 極히 一般的이고 概念的인 論議에 主로 依存키로 했다.

어떠한 學問이나 科學에 있어서도 그러하듯, 하나의 特定領域에 屬하는 問題라해서 어떠한 問題의 探求나 解釋이나 發見된 原理의 適用 等에 있어 그 學問이나 科學의 領域(discipline)에만 局限해서 生覺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의 主題인 憤怒라고 하는 問題도 元來 心理學的 問題이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의 探求나 解釋이나 發見된 原理의 適用 等에 있어서는 心理學이라고 하는 하나의 特定 discipline을 훨씬 넘는, 立場에 따라서는 넘을 수 밖에 없는, 性質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本 研究에서 우리의 主題에 對해 極히 簡略하게 專門的(心理學的)인 檢討를 加함과 아울러, 이를 떠나(넘어) 一般的인 立場과 聖經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의 主題를 探求하고 解釋하려 했으며, 나아가, 이에서 얻은 原理가 갖는 適用的인 意味를 浮刻시켜 보려고 試圖했다.

## II. 情的機能의 種類

人間의 情的機能은 嚴密히 分析해 보면 單純한 하나의 要素로만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 表現의 方式이나 強度에 따라 多樣스럽게 作用한다. 이러한 情的作用은 一般的으로 感情(feeling), 情緒(emotion), 氣分(mood), 情操(sentiment)의 네가지로 分類된다.<sup>1)</sup> 이러한 分類는 일찌기 Ward(J.)나 Wundt(W.)에 依해 行해진 後 많은 사람들이 이 分類를 따랐다.<sup>2)</sup>

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II - 1. 感情(feeling)

感情(feeling)은 本來 漠然한 感覺, 또는 그 어떤 意識的 狀態라는 程度의 意味로써, 특히 손바닥으로 느낄 수 있는 感覺的 經驗을 가리키는 말이다. 身體内外의 刺戟은, 그것이 意識的으로 感受되는 境遇에도, 또 生活體의 어떠한 行動을 불러 일으키는 境遇에도, 그 어떤 主觀的 動搖의 느낌을 隨伴한다. 이 主觀的 動搖의 體驗을 普通 感情이라 한다.<sup>3)</sup> 感情은 좋다(好), 싫다(嫌), 아름답다(美), 醜하다, 氣分좋다, 氣分나쁘다 等과 같이 日常事態에 있어서 主로

1) 例컨데, 金誠一 外 4人編纂, 1972, 活用教育學大事典, 서울, 信進出版社, pp. 43, 420, 432

千輪浩, 1959, 心理學, 東京, 誠信書房, p. 100

大瀬基太郎, 1935, 教育의 心理學, 東京, 大倉廣文堂, pp. 400, 449, 475

2) 金誠一, *Ibid.*, p. 43

3) *Ibid.*



刺戟에 對한 選擇過程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快(delight), 不快(distress) 등 우리의 心的作用이 比較的 부드럽고 單純한 形態로 나타날 때 이것 또한 感情이다. 이때 아름다운 色彩나, 싫은 냄새 등 사람에게 快, 不快의 情的作用을 일으키는 感情을 對象感情이라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快, 不快와 같은 모든 感情은 大部分의 境遇 어떠한 對象에 依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感情은 對象感情이라 할 수 있다.

## II - 2. 情緒(emotion)

기쁨(joy)이나, 노여움(anger)이나, 두려움(fear)이나 슬픔(grief)과 같은 강한 感情狀態를 情緒(emotion)라 한다. 情緒는 急激한 心的動亂狀態로서, 강한 快, 不快의 感情과 함께 意識이나 行動에 廣範圍한 變化를 일으키는 心的作用이다. 一旦 情緒가 作用하면 어떠한 刺戟에 對한 個人的 受容과 拒否의 態度는 아주 顯著해지고, 行動은 보다 더 特殊化한다. 예를 들면, 노여움의 情緒가 作用할 때엔 노여움을 일으키게 한 相對方에게 강한 攻撃的 意欲이나 行動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呼吸이 빨라지고, 瞳孔이 커지며 顔色이 굳어지는 등의 特徵的 變化가 일어난다. 外部에 나타나는 行動이나 表情의 變化 뿐 아니라 身體内部에도 강한 生理的 變化가 일어난다. 이들은 特殊한 環境事態에 對한 急激한 適應過程의 現象으로서 이때 日常 時的 正常的인 適應行動은 一時 低下하고 個人的 活動이 모두 特殊한 事態에 集中하게 된다. 따라서, 知的活動은 低下하고, 行動 自體도 原始的 形態를 取하게 된다. 이러한 行動을 情緒的 行動(emotional behavior)이라 한다.<sup>4)</sup>

## II - 3. 氣分(mood)

氣分(mood)이란 어쩐지 즐겁든지, 不愉快하다고 느낄 境遇에 볼 수 있는 弱한, 그러면서도, 持續的인 快, 不快의 情的狀態를 말한다. 氣分은 普通 情緒가 나타나기에 앞서 作用하는 先驅로서, 또는 그 殘効로 發生하기도 하고, 또한 陰散한 日氣와 不潔한 環境與件이나 不便한 生理的 與件 등의 反映으로서 發生하기도 한다. 氣分은 情緒와 같이 個人的 外的行動이나 內的 生理作用에 강한 影響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個人的 心的狀態에 相當히 長時間동안 持續的으로 影響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生活에 적지않게 作用하는 것이다. 氣分은 우리의 人間關係나, 從事하는 일의 成敗를 크게 左右하며 氣分如何에 따라 우리의 어떠한 일에 對한 意欲이나 意志는 아주 強해질 수도, 아주 弱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氣분이야말로 우리의 日常生活를 明朗한 것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憂鬱한 것으로 만들기도 하는 原動力이라 할 수 있다.

4) 千輪浩, *op. cit.*, p.100

## II - 4. 情操(sentiment)

情操는 주로 人間の 高等精神活動에 隨伴하는 永續的인 感情的 態度를 말한다.<sup>5)</sup> 例컨데, 古典音樂은 좋아하지만 流行歌는 싫다고 하는 것과 같은 經驗에 依해 形成되는 것이 情操로서, 이는 知的活動이나 藝術的 活動에 對한 受容, 拒否의 態度에서 볼 수 있는 情的作用인바 흔히 知的感情(intellectual feeling)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매우 高尚한 感情으로서, 이러한 情操는 青年期에 이르러서 비로소 作用하기 始作한다. 따라서 情操는 感動的 因子를 內包하긴 하나, 同時에 分명한 觀念이나 對象意識을 隨伴하기도 한다. 個人的 觀念에 附隨되어 있는 한가지 또는 그 以上の 여러 感情이 統一되고 또 어느 程度 持續的으로 일어날 때의 心的作用이 곧 情操이다. 情操는 個人的 知的機能이 分化, 發達하고 自我的 內面的 生活과 特히 理念이 發達해 감에 따라 여러 形態로 나타난다. 情緒와는 달리 情操는 本能的 欲求와의 直接的인 關係는 없다. 그리고 外的 表情이나 行動과 內的인 生理的 變化를 일으키지 않는 한편 氣分과 같은 漠然한 有機感覺과도 關係가 없이 個人的 修養이나 教養의 程度에 따라 差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情操인바, 이는 우리의 價値觀의 基礎가 되며 우리의 人格이나 品性을 形成하는 重要한 因子인 것이다.

情操는 人間이 追求하는 眞, 善, 美, 聖의 네가지 理念에 따라 論理的 情操와 道德的 情操와 美的 情操와 宗教的 情操로 分類된다. 이들을 簡單히 살펴보면, 論理的 情操(logical sentiment)는 思考에 隨伴되는 情操로서 眞理를 사랑하고 追求하며, 虛偽를 미워하고 排斥하는 感情이고, 道德的 情操는 自身이나 他人의 行爲에 對해 價値判斷의 基準을 提供해 주고, 邪와 惡을 미워하여 멀리하고 正과 善을 사랑하여 實現코자 하는 倫理指向的인 感情을 말한다. 美的 情操(aesthetic sentiment)는 人生과 自然의 아름다움을 禮讚하고 調和와 均衡이 잡힌 아름다움을 追求, 實現하고, 醜한 것을 멀리하여 없애으로써 生의 喜悅을 成就하고자 하는 感情을 말하고, 끝으로 宗教的 情操(religious sentiment)는 超自然的, 超人間的, 不可知的 絕對者를 찾아 敬畏하고, 이에 歸依하려는 이른바 絕對歸依의 感情을 말한다. 이러한 感情은 人間이 自身的 限界狀況을 스스로 自覺하고 有限한 이 世上을 벗어나 永遠한 저 世上을 憧憬하고 思慕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서, 이는 人間으로 하여금 現實世界의 不安에서 벗어나 永遠世界의 安慰를 누리게 하는 힘인 것이다.

## III. 憤怒의 源泉과 種類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主題인 憤怒라고 하는 人間の 情緒作用에 對한 究明의 豫備的 節次로서 情緒와 同一한 情的 因子인 感情과 情緒 그 自體와 氣分과 情操에 對해 考察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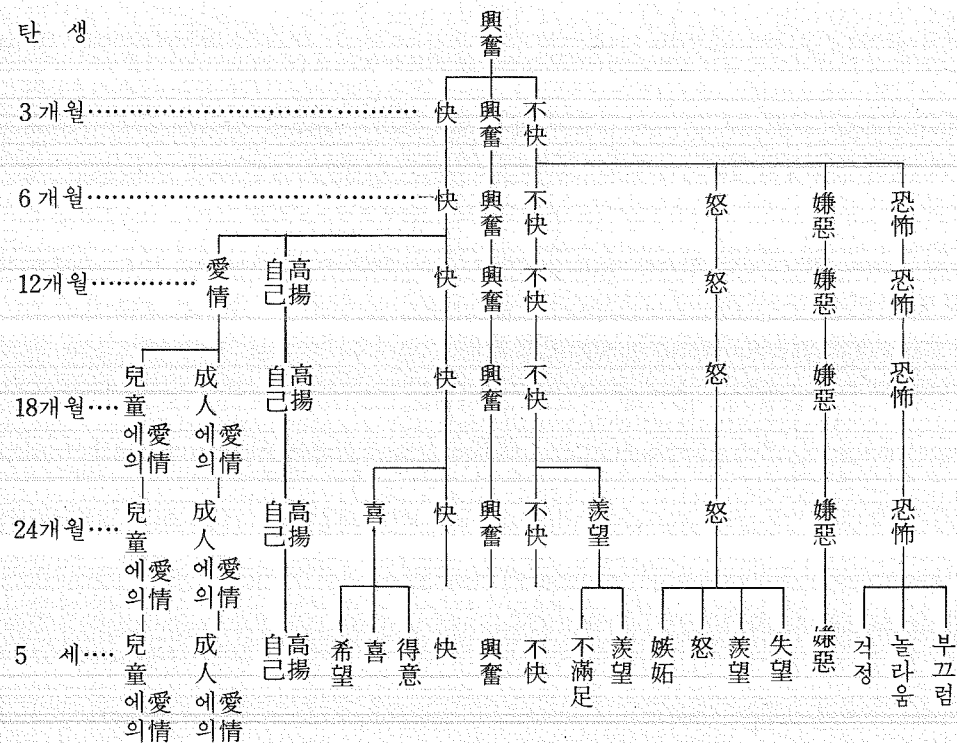
5) *Ibid.*

위의 論議에서 우리는 憤怒라고 하는 人間의 가장 原初的이고 普遍的인 情的作用은 기쁨이나 두려움이나 슬픔과 같은 作用과 아울러 情緒에 屬하는 情의 因子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 憤怒는 情緒로부터 어떻게 分化, 發達하고, 憤怒를 일으키는 要因은 무엇이고, 이러한 憤怒가 表現될 때 그 形態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에 對해 考察해 보고자 한다.

III - 1. 憤怒의 源泉 - 情緒의 分化, 發達

人間의 情緒的 作用의 가장 原初的인 形態는 興奮(excitement)이라 한다. 母胎에서 갓 태어난 新生兒가 터뜨리는 울음이 바로 그 表現이라 한다. 英國의 兒童研究家인 K. M. B. Bridges女史에 依하면<sup>6)</sup> 生後 1個月과 3個月이 되면 이러한 未分化狀態의 原初的 情緒에서 不快(distress)와 快(delight)의 情緒가 各各 나타나고, 6個月이 되면 다시 不快에서 憤怒(anger)와 恐怖(fear)와 嫌惡(disgust)의 情緒가 分化, 發達하는가 하면 12個月이 지나면 다시 快에서 愛情(affection)과 기쁨(joy)의 情緒가 分化, 發達하는 등, 大概 5才까지는 成人에게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性質의 情緒들이 發達한다고 한다.

表 1. 情緒의 分化 (K. M. B. Bridges, 1932)<sup>7)</sup>



6) Bindges, K. M. B., 1932, "Emotional Development in Early Infancy," *Child Development*, III, pp. 324~341  
7) *Ibid.*

Hurlock (E. B.)은 어린이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共通的인 情緒의 型으로 恐怖(fear), 嫉妬(jealousy), 愛情(affection), 기쁨(joy), 好奇心(curiosity)의 여섯가지를 들고 있고,<sup>8)</sup> Gates (A. I.)는 一般의 情緒의 基本으로서 強한 危急情緒(strong emergency emotions)와 부드럽고 즐거운 高揚情緒(mild, joyful upbuilding emotions)와 性情緒(sex emotions)를 提示하고, 危急情緒로서 憤怒 및 이와 類似한 激怒(rage), 狂暴(fury), 怨痛(vexation), 짜증(irritation), 復讐(revenge), 嫉妬(jealousy), 嘲笑(scorn)와 ② 恐怖(fear) 및 이와 類似한 걱정(dread), 不安(anxiety), 念慮(worry), 憂鬱(melancholy), 겁(terror), 悲哀(grief), 後悔(regret)와 ③ 興奮(excitement), 不安(uneasiness), 焦燥(nervousness), 唐慌(embarrassment)과, ④ 極度の 隣憫(extreme pity), 同情(symptathy), 得意(elation), 熱情(enthusiasm) 등을 分類, 列舉하고 있다.<sup>9)</sup> Watson (J. B.)은 生後 1個月 未滿의 新生兒들을 觀察하고 그들에게서 恐怖(fear)와 憤怒(anger)와 愛情(affection)이 生得的 情緒임을 發見했으며, 이들 基本的이고 原初的인 情緒로부터 다른 모든 情緒들이 分化, 發達하는 것으로 보았다.<sup>10)</sup> 이러한 生得的 情緒에 對한 Watson의 見解에 對해 反對의 立場을 取하는 研究의 結果들(research findings)도 報告되고 있다. 예컨대, Dashiell (J. F.)은 어린이는 情緒라고 일컬을만한 뚜렷한 生理的 反應을 지니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研究結果를 報告하고 있고,<sup>11)</sup> Sherman (M.)도 出生時의 新生兒의 情緒的 狀態를 觀察할 수 없었음을 報告하고 있다.<sup>12)</sup> 비록 人間의 生得的 情緒의 有無에 對해서는 心理學者들 사이에 完全한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 大部分은 新生兒에게 있어서 分明히 認知할만한 唯一한 情緒的 反應이 있다면 그것은 本能的 몸움직임(random movement)과 울음(crying)으로 이는 適切한 呼稱의 缺如로 因해 興奮(excitement)이라고 불리워진다고 한다.<sup>13)</sup>

以上の 論議에서 밝혀진 事實은 憤怒(anger)라고 하는 人間의 普遍的 情緒는 그것이 비록 生得的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出生後 最初로 나타나는 不過 몇 개 안되는 情緒作用의 한 因子라는 것이다.

III - 2. 憤怒를 일으키는 要因들

그러면 人間에게 이러한 노여움의 情緒作用을 일으키는 要因은 무엇인가? 憤怒를 일으키는 要因은 人間의 發達段階에 따라, 그리고 사람과 境遇에 따라 一定치 않다, 憤怒를 誘發하는 要因은 單純한 身體的, 物理的 要因으로부터 始作하여 心理的, 人格的, 社會的 要因과 나아가서는 倫理的, 宗教的 要因等 보다 높은 要因들까지 多樣하다.

8) Hurlock, E. B., 1953,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p. 71  
9) Gates, A. I., 1930, *Psychology For Students of Educa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pp. 154~155  
10) Watson, J. B., 1925, *Behaviorism*,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pp. 121~124  
11) Dashiell, J. F., 1928, *Fundamentals of Objective Psychology*, Houghton Mifflin Company, Chapter VIII  
12) Sherman, M., 1927, "The Differentiation of Emotional Responses in Infants," *Journal of Comparative Psychology*, VII, pp. 265~284  
13) Tiffin, J., Knight, F. B. & Josey C. C., 1940, *The Psychology of Normal People*, Boston, D. C. Heath And Company, p. 212



個人에게 憤怒를 일으키는 要因들에 對해 Cole(L.)은 各 發達段階마다 아주 興味로운 觀察 研究結果를 報告하고 있다.<sup>14)</sup> Cole女史에 依하면 嬰兒가 노여움을 일으키는 것은 배가 고프는데 먹이 주어지지 않을 때, 기저귀가 젖었는데 清潔하고 乾燥한 것으로 바꾸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리고 運動의 自由가 抑制當할 때 等이라고 한다. 어린 兒童은 例컨데,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을 빼앗겼을 때, 興味없는 일을 하도록 強要當할 때 憤怒를 일으킨다고 한다. 幼少한 어린이들에게 있어 憤怒를 일으키는 要因은 主로 生理的, 身體的, 物理的인 것이 共通點이다. 그러나 이와는 對照的으로 青年期나 成人期의 個人에게 있어서는 그에게 憤怒를 일으키는 要因은 보다 心理的인, 人格的인, 그리고 社會的인 것으로 變化해 간다. 青年은 例컨데, 公席에서 侮辱을 當한다든가, 自主意識이나 獨立心에 阻害를 當했을 때 憤怒를 터뜨린다. 成人의 境遇도 憤怒를 일으키는 原因은 거의 同一하다. 社會的 地位에 損傷을 입는다든지, 씻을 수 없는 不名譽를 當한다든지 할 때 成人은 노여움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發達段階마다 서로 다른 이들 노여움을 일으키는 要因들에서 한가지 共通點을 찾는다면 그것은 個人的 要求(needs)가 充足되지 않으므로 생기는 緊張(tension, stress)이 解消되지 않을 때 빠지게 되는 欲求不滿(frustration) 狀態이다. 欲求不滿에 빠질 때 個人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一般的인 情緒的 反應은 憤怒이다. 乳兒에게 있어서는 身體運動의 抑制나 空腹時의 食物不供給은 그에게 生理的인 緊張을 일으켜 그를 欲求不滿狀態로 몰아넣어 그로 하여금 憤怒를 터뜨리게 한다. 자라서 青年期나 成人期에 이르면 欲求不滿을 일으키는 主된 要因은 單純한 身體的, 物理的인 것에서 心理的, 人格的, 社會的인 것으로 옮겨간다. 그래서 青年이나 成人은 自身이 社會的 認定을 받지 못하거나 人格的 侮辱을 받거나 할 때 더 화를 내고 노여움을 爆發한다. Cohen(A. A. N.)과 Spatz(D.)의 研究는 이러한 事實을 잘 뒷받침 해 주고 있다. 그들에 依하면 調査를 받은 大學生들에게 있어서 憤怒를 일으키게 한 要因들의 거의 4分之3은 計劃의 挫折이나 地位의 剝奪(危脅)에 있었다 한다.<sup>15)</sup> 個人이 人格的으로 또는 社會的으로 보다 더 成熟해감에 따라 憤怒를 일으키는 要因의 次元은 높아간다. 自身の 價値觀이나 自由意志 等 보다 精神的이고 內面的인 側面에 阻害를 입을 때 成熟한 個人은 憤怒를 나타낸다. 또 自身에게는 비록 어떠한 物理的인 損傷이 加해지지 않았을 境遇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맺혀진 同類意識(fellowmen consciousness)이나 社會共感帶의 共同體意識에서 成熟한 個人이나 그 個人的 集結體인 社會共同體는 어떠한 不義나 不條理가 어느 水準을 넘을 때에는 거기에 憤然 抗學한다. 그러나 憤怒가 爆發되는 가장 普遍的인 要因은 무엇보다도 個人에게 直接 害惡이 加해졌을 境遇이다. 自身에게 不當한 害惡이 加해졌을 때 個人은 幼少者나 成熟者를 莫論하고 憤怒의 反應을 하는 바 이는 一種의 自己防禦反應(self-defence response)이다. 그런데 自身에게 害惡이 加해질 때 때로는 恐怖(fear)의 反應을 나타내 보이기도 한다. 이를 逃避的 自己防禦(escape self-defense response)라 하고 前者(憤怒의 反應)를 攻擊的 自己防禦(aggressive self-defense)라

14) Cole, L., 1966, *Psychology of Adolescenc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pp. 246~249

15) Cohen, A. A. N. & Spatz, D., 1948, "A Study of Fear and Anger in College Students through the Diary Method,"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pp. 73, 243~249, quoted from Cole (L.) *Ibid.*, p. 248

고 한다. 個人에게 加해지는 害惡 못지않게 意識共感帶가 形成된 社會共同體나 거기에 屬한 成員(들)에 對한 物理的, 精神的 害惡은 그 社會共同體 全體나 그 成員(들)에게 憤怒를 惹起시킨다. 그 社會共同體의 主體性(identity)을 抹殺하려 하거나 害惡이 加해졌을 때, 그리고 한 社會가 共同으로 認定하고 崇尚하는 倫理的, 宗教的 價値規範이나 良心 等を 侵害하여 그 社會共同體나 거기에 屬한 成員(들)에게 衝擊을 주었을 때 여기서 發生하는 個人的 公的 憤怒는 實로 큰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좋은 例를 그 處刑場面을 公開해야 한다고 하는 沸騰한 輿論까지 惹起시킨 바 있는 家庭破壞 破廉恥 凶惡犯들에 對한 全國民의 激怒라든지, 近者에 큰 衝擊을 안겨준 바 있는 두 映畫人에 對한 北傀의 天人共怒한 拉致蠻行이 물고 온 全國民의 憤怒라든지, 아직도 記憶에 生생한 蘇聯의 非武裝民間旅客機에 對한 擊墜蠻行과 北傀의 우리 外交使節들에 對한 아웅산墓所 暗殺爆破事件이 휘몰아 일으킨 韓國國民과 全世界 平和愛護人들의 大怒 等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極히 當然한 行爲規範을 侵害하여 人倫을 짓밟는 事例가 發生할 境遇, 倫理意識의 共感帶를 形成하고 있는 社會共同體는 이를 容納치 않고 이에 憤怒의 應懲을 加한다. 一般大衆에게는 無關心事일 수도 있는 높은 水準의 倫理的, 宗教的 價値規範이나 良心에 對한 侵害가 불러 일으키는 義로운 憤怒는 다른 憤怒 一般과는 質的으로 다른 것으로 이는 高度의 精神生活이나 信仰生活世界에서나 볼 수 있는 憤怒인 것이다.

### III - 3. 憤怒의 種類

憤怒는 그것이 表現되는 樣相에 따라 몇 가지로 分類될 수 있다. 우선, 個人的 欲求不滿의 水準이 낮았을 때에는 不平(complaint)이나 不滿(discontentment)이 나타나는 바 이는 憤怒의 本格的 爆發의 前哨段階에 나타나는 心的 作用으로서 앞에서 이미 言及한 바 있는 感情의 段階에서 나타나는 作用이다. 이때에는 個人에게 뚜렷한 表情의 變化나 行動의 變化나 生理的 動亂은 없다. 이 段階에서 欲求不滿을 解消하거나 克服하거나 하는 것이 個人的 心身의 健康에 좋음은 말할 必要도 없다. 個人的 欲求不滿의 水準이 높아지거나, 特히 그에게 外部로부터의 어떠한 害惡이 加해지면 그에게서는 憤怒라고 하는 情緒作用이 나타난다. 이때에는 個人的 表情이나 言動이 굳어지고 거칠어질 뿐 아니라 生理現象이나 作用에도 變化가 생기게 된다. 이 憤怒를 일으키는 要因이 加重되어 노여움이 高潮되고 激昂될 때에는 個人的 憤怒는 激怒(rage) 또는 激憤(fury)으로 化한다. 이런 境遇 個人은 大部分 激烈한 攻擊의 言動으로 反應할 뿐 아니라 또한 甚한 內的 激浪을 겪게 된다. 憤怒에는 個人 하나가 화를 내는 私的 憤怒(Personal anger)가 있고, 한 時代, 社會, 文化가 當然한 것으로 認定하고 信奉하는 人倫이나 社會正義 等이 짓밟힐 때 意識共感帶에서 북받쳐 우러나오는 個人이나 社會共同體의 義憤(righteous anger)이 있고 公憤(shared anger or public anger)이 있다. 義憤이나 公憤은 或 때로는 單純한 群衆心理에 依한 共鳴으로서 社會心理의 現象, 作用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는 高度의 精神生活을 營爲하는 人間에게서만 볼 수 있는 精神的 反應現象이요 作用인 것이

다. 그리고 또한 通俗的 立場에서 生覺할 때 노여움에는 눈물을 머금고 억울함을 꼭꼭 되씹어야 할 悲憤(grievous anger)이 있는가 하면, 個人에게 가슴을 칼로 베는듯한 아픔을 안겨주는 痛憤(bitter anger)이 있고, 거기에 또 터질듯한 가슴을 움켜쥐고 북받치는 화를 억눌러야 할 병어리 냉가슴 앓기의 鬱憤(melancholy anger)도 있다.

또한 憤怒에는 그것이 表現되고 作用하는 對象에 따라 自虐的 憤怒(masochistic anger)와 他虐的 憤怒(sadistic anger)가 있다.<sup>16)</sup> 自虐的 憤怒는 個人에게 憤怒를 일으키게 하는 他人(때로는 自己自身の)의 行動의 原因이나 責任을 自己自身에게로 돌려 스스로에게 화를 내고 공격을 가하는 그러한 種類의 憤怒이다. 이때 自虐的 憤怒의 反應은 大概 두가지 形態로 나타난다. 그 하나는 발을 마구 내딛거나 때를 때를 두들기거나, 自身の 머리카락을 움켜쥐거나, 가슴을 세게 두들기는 등의 境遇이고, 다른 하나는 自身の 激한 感情을 밖으로(他人에게) 나타내지 않고 마음속에 억누르며 괴로움을 참고 克服하는 境遇이다. 前者의 境遇는 幼少者나 圓熟하지 못한 人格의 所有者에게서 볼 수 있는 反應樣相이고 後者의 境遇는 成熟한 人格의 所有者에게서 볼 수 있는 憤怒의 反應形式이라 할 수 있다. 成熟한 人格者일수록 平凡한 要因에 의한 憤怒는 그것을 일으키는 일이 드물고, 或 일으키는 境遇라 할지라도 그것을 外部로 잘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참아 견디고, 消化하고 克服하는 傾向이 있다. 보다 더 一般的이고 普遍的인 憤怒는 他虐的 憤怒이다. 이는 自身에게 憤怒를 일으키는 他人의 行動의 原因과 責任을 全적으로 他人에게 돌리고(或 때로는 그 原因이나 責任이 自身에게 있을 境遇에도) 自身の 激昂된 感情을 他人에게 表現하고 攻撃의 行動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憤怒이다. 一般人들의 平常生活에 恒常 나타나는 憤怒는 바로 이러한 憤怒이다.

#### IV. 憤怒의 表現과 그 影響

憤怒의 發生은 大部分의 境遇에 있어서 相對的이다. 時間과 場所와 사람에 따라 憤怒를 發生시키는 原因은 同一치 않다. 지난날에는 個人이나 社會共同體의 憤怒를 일으켰던 要因들이 오늘에 이르러서는 一般이 當然한 것으로 認定하는 常識的 價値로 化할 수도 있고, 한 個人이나 社會나 文化圈에는 當然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다른 個人이나 社會나 文化圈에는 到底히 容納되지 않는 私的, 公的 憤怒의 要因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例컨데, 現代 西歐文化圈에 屬하는 開放社會에 있어서는 婚前의 男女(婚約關係가 없는) 사이의 어울림(性的 交際까지도)을 現代人의 自然스러운 生活方式의 하나로 여기는 一般的 傾向이 있는가 하면, 이에 反해 回教國家社會와 같은 社會에 있어서는 이러한 行爲는 마땅히 苛酷한 應懲을 加해야 할 私的, 公的 憤怒의 促發要因이 되는 것이다. 또 共產主義社會에서는 父母나 教師等의 사람에게도 “동무”라고 하는 呼稱이 當然하게 使用되고 있음에 反해, 正當한 人倫과 價値觀이

16) 以上の 憤怒에 對한 多樣스러운 分類는 論者 自身の 識圖임을 밝혀둔다. 憤怒에 對한 分類는 一般 心理學 關係文獻들에서 別로 試圖되지 않고 있는듯 하다.

支配하는 自由世界에서는 윗 사람에게 對한 이러한 呼稱은 甚한 憤怒를 일으키는 容納 못할 行爲인 것이다.

어떠한 契機에 依해서든지 一旦 憤怒가 發生하면 이 憤怒는 어떠한 樣相으로든지 밖으로, 또는 안으로 表現되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憤怒는 어떠한 樣相으로 表現되는가? 그리고 憤怒가 表現될 때 그 結果는 어떠한가에 對해 生覺해 보기로 하자. 그런데 우리는 위에서 憤怒의 種類에 對해 論議하면서 憤怒의 表現樣相에 對해 이미 多少의 言及이 있었음을 想起시키는 바이다.

#### IV-1. 憤怒의 表現樣相들

憤怒는 그것을 일으키는 要因의 種類나 強度에 따라, 그리고 個人의 發達段階나 成熟의 程度에 따라서 多樣스럽게 表現된다. Gesell(A.) 등은 個人의 憤怒表現의 樣相들을 아주 生생하게 描寫하고 있다.<sup>17)</sup> 그들에 依하면 乳兒는 憤怒가 發生할 때에는 身體가 아주 굳어지고,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고, 울음을 터뜨리고, 두 팔과 다리로 虛空을 치는 등의 反應을 나타낸다고 하는 바 이는 그에게 可能한 唯一한 反應形式으로서 아마도 心身, 筋肉의 未發達로 다른 反應作用이 不可能하기 때문일 것이라 한다. Watson(J.B.)도 비슷한 現象을 報告하고 있다. 그는 乳兒의 머리를 自身の 두손 사이에 가볍게 붙들고 양팔과 양발의 運動을 制止했다 한다. 이에 乳兒는 身體를 굳게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이를 避하려고 몸부림쳤다 한다. 뜻대로 안되자 乳兒는 숨을 멈추고 비명을 지르며 蒼白해지는 등의 反應을 보였다 한다.<sup>18)</sup> 就學前의 幼兒도 노여움이 發生할 때엔 울음을 터뜨리고 身體가 굳어진다고 한다. 거기에 덧붙여 그는 또한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고, 물어뜯고, 손톱으로 긁고, 발을 아래 위로 요란스럽게 구르고, 自身の 몸을 내동댕이치곤 하는 反應을 보인다고 한다. 國民學校 兒童들, 특히 男子어린이들은 自身들에게 憤怒를 일으킨 사람에 對해서는 그가 누구든지 直接的인 身體的 攻撃을 加하는 것이 Gesell 등에 依해 觀察되었다 한다. 그리고 青年期에 이르면 反應形式은 뚜렷이 달라져 憤怒를 發生시킨 要因이 있는 場所를 떠나거나, 身體的 攻撃代身に 言語 攻撃으로 나타내거나 한다 한다. Cole(L.) 博士도 青年期의 젊은 男女들과 成人들의 憤怒의 反應樣式을 觀察, 報告하고 있다.<sup>19)</sup> Cole의 觀察에 依하면 青年들은 憤怒가 發生하면 亂暴한 衝動을 意圖의으로 抑壓하여 暴力을 實際로 行使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한다. 그 代身に 젊은 男女들은 무거운 걸음으로 室內을 거닐어 다닌다든지, 全體의으로 不安스럽다든지, 훌쩍 散策에 나선다든지, 亂暴하고 激烈한 運動 등에 沒頭한다든지 하면서 노여움의 情緒를 解消한다고 한다. 自身들에게 憤怒를 일으키게 했거나 感情을 損傷한 사람에 對해서는 全히 말하기를 拒否하는

17) Gesell, A., Ilg, F. L. & Ames, L. B., 1956, *Youth: The Years from Ten to Sixteen*,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Inc., pp. 542, 338-341

18) Garrett, H. E., 1941, *Great Experiments in Psychology*, New York, D. Appleton-Century Company, p. 307

19) Cole, L., *op. cit.*, pp. 248-249



微妙한 反應도 보였다 한다. 이와 아울러 男子 青年에게 있어서는 양발을 쿵쿵 구르고 物件들을 닥치는대로 차버리는 反應樣相이 나타났고, 女子에게 있어서는 울음을 터뜨리는 樣相도 나타났다고 한다. 成人들에게 있어서는 女性的 境遇 아직도 울고, 男性的 境遇 如前히 物件들을 발로 차재치는 反應現象이 있긴 하지만 大部分 言語로 다른 모든 形態의 反應들을 代身했다고 한다. 個人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의 情緒的 緊張을 解消하는 方式은 더욱 더 直接的이라는 것도 우리 憤怒反應의 한 特徵이다.

Perrin(F. A. C.)과 Klein(D. B.)에 의해 引用되고 있는<sup>20)</sup> Morrison이 밝힌 憤怒發生時 個人에게 나타나는 一般的 現象은 우리의 興味를 끈다. 이를 여기에 原文 그대로 紹介하는 바이다.

1. Expression of the Face

a. Brows contracted, eyes narrowed

Brows raised, eyes wide and glaring

Brows level, eyes fixed, glance cold and steady

b. Mouth closed, lips thin, jaws set

Mouth open (as in loud speech)

Mouth opened slightly, lips curled, or twisted

c. Nostrils distended

d. Face flushed, pale, or of blotchy appearance

e. Perspiration on forehead and upper lip

2. Vocal-motor Reactions

a. Nasal and guttural sounds

b. Cursing, sarcasm, insults, etc.

c. Voice loud, hoarse, or low and threatening

3. Cardio-respiratory and Vaso-motor Reactions

a. Very marked chest movements, deep and rapid breathing

b. Increased strength and rate of heartbeat (seldom observed)

c. Blood vessels of neck, face, and arms distended

d. Color of skin, flushed or pale

4. Posture and Movements of the Body

a. Erect, rigid

Slightly crouched, and bent forward

b. Trembling

20) Perrin, F. A. C. and Klein, D. B., 1926, *Psychology-Its Methods and Principles*, New York, Hery Holt and Company, pp. 161~162

c. Running toward or throwing body against the offending object

Spitting upon the object

5. Position and Movements of the Limbs

a. Fists clenched

Fingers claw-like

b. Emphatic gestures of arms accompanying angry words

c. Pulling hair, striking, kicking

6. General Attitude

a. Unsociable

b. Disobedient, resentful

c. Irritable, sullen

Cole은 憤怒解消의 反應行動과 關聯하여 어떠한 方式으로든지 우리의 情緒的 緊張은 解消해야만 한다고 憤怒解消의 必要性을 이렇게 力說한다.

"Direct release is perhaps best physiologically for the person who is under tension, indirect release the next best, and suppression—with its storing up of tensions—quite undesirable at any age."<sup>21)</sup>

發達段階에 따른 憤怒의 反應形式에 關한 觀察報告에 결들여 Cole은 憤怒의 情緒反應의 持續時間과 그 發生頻度 등에 關한 興味로운 觀察結果를 提供해 주고 있다. 그에 依하면 憤怒의 持續時間은 個人의 年齡에 따라 差異가 있는 바 未就學兒童들에게 있어서는 平均 15分이라 한다. 그런데 大學生들의 境遇는 一旦 憤怒가 發生하면 짧게는 一分間으로부터 始作해서 길게는 48時間까지 持續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sup>22)</sup> 그리고 憤怒가 發生하는 頻度は 年齡의 差異에도 不拘하고 別로 큰 差異가 없으며 主된 差異는 憤怒를 일으키는 狀況과 이에 加해지는 反應樣式들과 反應의 持續時間 등에 나타난다고 한다.<sup>23)</sup> Cole에 依하면 大學生들은 一週間 동안에 平均 16번 憤怒를 體驗했다 한다.<sup>24)</sup> 그리고 이들 憤怒를 일으킨 狀況要因은 現在의 것이 全體의 94퍼센트, 過去가 3 퍼센트, 未來가 3 퍼센트였다 한다고 한다.<sup>25)</sup> 여기에 또 한 가지 附言할 것은 憤怒를 일으키는 頻도가 높은 者일수록 興奮이나 幸福이나 愛情이나 嫉妬나 憂鬱과 같은 다른 情緒反應을 일으키는 頻度も 높았다 한다.<sup>26)</sup>

論議의 本主題에 되돌아와서, 憤怒가 어떠한 集團이나 社會共同體에 依해 作用할 때엔 그 反應形式은 個人의 그것과 相當히 다르다. 이 境遇엔 群衆心理라고 하는 非理性的인 衝動性

21) Cole, L., *Ibid.*, 249

22) *Ibid.*

23) *Ibid.*

24) *Ibid.*, p. 247, 그는 一團의 大學生들에게 한 週間동안 憤怒가 나타날 때마다 記錄하여 그 回數를 集計하도록 하여 이러한 結果를 얻었다.

25) *Ibid.*, p. 248

26) *Ibid.*, p. 247

이 加味되어 때로는 亂暴한 示威나 甚할 境遇엔 分別없는 破壞行爲와 같은 激烈한 反應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 溫健한 反應形態를 取할 境遇엔 怠業이나 課業履行拒否와 같은 方式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反應行動의 對象이 權威나 힘에 있어 越等한 階層에 있을 때에는 個人이나 集團은 憤怒를 마음대로 發散하지 못하고 鬱憤속에 憤淚를 삼키며 冷笑主義나 無抵抗主義의 態度로 反應하기도 한다.

#### IV - 2. 憤怒의 影響과 結果

憤怒는 個人的이건 集團的이건 그것이 一旦 發生하고 作用하면 반드시 어떠한 結果를 남긴다. 이 憤怒의 情緒의 作用이 個人이나 集團에게 끼치는 影響은 境遇에 따라서는 적지 않다.

個人에게 있어서 憤怒라고 하는 情緒作用이 끼치는 影響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그의 生理現象이나 機能에서이다.

個人에게 憤怒와 같은 強한 情緒作用이 일어나면 그의 內臟이나 그밖의 生理機能의 活動性에 變化가 생긴다. 이러한 生理機能의 變化는 呼吸, 脈搏, 血量, 血壓, 血液이나, 尿의 成分, 腺의 分泌, 消化器官의 運動, 腦波 등에서 볼 수 있다. 이들 機能의 變化는 서로 別個의 것으로 孤立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自律神經系의 支配下에서 綜合的으로, 有機的인 關聯을 가지고 일어난다. 交感神經과 副交感神經은 各各 促進作用과 抑制作用을 함으로써 相互 牽制作用을 하면서 生理機能에 均衡을 維持하여 有機體의 正常的인 生存과 發達을 可能케 해준다. 自律神經系의 活動이 가장 顯著하고 特徵的으로 나타나는 것은 憤怒나 恐怖와 같은 強한 情緒가 作用할 때다. 特히 憤怒가 나타날 때에는 交感神經에 異常興奮이 일어나 副交感神經의 作用을 壓到해 버린다. 副交感神經은 選擇的으로 各 器官에 作用하지만 交感神經은 一旦 興奮하면 그 支配下에 있는 全 生理器官에 變化를 일으킨다. 그리하여 內臟의 血量은 減少하고, 平滑筋의 運動도 減退하여 消化機能이 停止하고, 血糖이 增加하며, 心臟의 搏動이 增加하여 骨格筋의 血量이 增加한다. 뿐만 아니라 氣管支는 擴張하여 呼吸回數가 늘어나며, 또 副腎髓質로부터의 Adrenalin의 分泌가 增加하여 內臟器官에 交感神經의 昇騰과 같은 作用을 일으켜 이에 異常變化를 일으키는가 하면 이밖에도 많은 生理的 變化를 일으키는 바, 이들은 모두 恐擊行動이나 逃避와 같은 激烈한 身體活動에 適合한 生理的 狀態인 것이다. 이러한 狀態는 危急事態에 對應하는 有機體의 自律的 調整에 따른 生理的 適應을 意味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強한 情緒狀態에 있어서는 強한 恐怖의 情緒狀態에 있을때와 같이 個人은 때로는 허리가 펴지지 않거나, 自身도 모르게 放尿하거나(特히 女子의 境遇), 脫糞하거나 턱을 떨거나 하는 등의 心身機能의 一種의 崩壞現象이 나타나는 수도 있다.<sup>27)</sup> 憤怒라고 하는 強한 情緒的 作用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生理的 變化 가운데 特히 消化機能의 異常變化에 關한 實驗的 研究의 結果를 報告한 心理學者가 있다. 그는 Woodworth(R. S.)로서 그는 고양이를 對象으로 興味로운 實驗觀察을 한 바 있다. Wood-

27) 千輪浩, *op. cit.*, p. 104~105

worth博士는 한 마리의 고양이에게 胃에 들어갔을 때 X-ray에 透視되어 잘 나타나 보이는 特殊한 物質이 含有된 맛있는(無害한) 食物을 주어 먹게하고 X-ray를 通해 그것이 正常的으로 消化되고 있음을 確認했다. 그後 갑자기 한 마리의 사나운 개를 고양이 앞에 出現시켜 고양이로 하여금 憤怒를 일으키게 한 後 憤怒의 狀態에 있는 고양이의 胃의 消化作用을 X-ray로 觀察했다. 이 때에 나타난 現象은 놀랍게도 食物을 消化시키는 胃의 作用은 갑자기 停止했고 胃液의 흐름도 停止하여 消化作用이 完全히 停止되었고, 이러한 狀態는 개가 그 자리에서 떠난 後 15분이 經過할 때까지 繼續되었다 한다.<sup>28)</sup>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憤怒라고 하는 個人的 情緒作用이 그의 生理作用에 끼치는 影響은 거의 한결같이 否定的인 것이므로 可能한대로 憤怒를 일으키는 要因이 나타나지 않도록, 또 나타났을 境遇에는 이를 知性的으로 슬기롭게 克服하거나, 合理的으로 反應해야 한다. 人間이란 正常的인 狀況에서는 憤怒가 發生했을 때 누구나 이에서 비롯되는 相應한 反應을 하기 마련이므로 이를 適切히 發散하여 이에서 오는 緊張狀態를 解消치 않으면 안된다. 이때 直接的인 發散이 生理的으로 볼 때 가장 좋고, 間接的인 發散이 그 다음으로 좋고, 쌓인 緊張을 蓄積하여 抑制한다는 것은 가장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專門家들의 見解<sup>29)</sup>임에 비추어 우리는 憤怒가 發生할 때 슬기롭게 對應해야 할 것이다. 憤怒라고 하는 情緒作用은 個人的 生理機能에 뿐 아니라 社會關係에도 적지 않은 影響을 끼치는 勿論이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며 움직이고 情緒가 作用하는 동안에는 憤怒는 恒常 發生하고 여러가지 形態로 表現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憤怒는 거의 全部가 우리에게 有益을 끼쳐주기 보다는 害를 끼쳐주는 傾向이 있다. 他人에 對한 憤怒는 必然코 그에 對한 미움(hatred)으로 發展되고 이러한 미움이 介在하는 憤怒의 言動은 그와 自身과의 사이를 멀게하거나 아주 斷切해 버리기도 한다. 他人에 對한 憤怒는 大概 亂暴한 말씨나 行動으로 表現되기 때문에 우리의 人間關係에 否定的 結果를 낳는다. 우리는 原因도 別로 明白치 않은데도 憤怒를 지나치게 자주, 그리고 지나치게 強하게 일으켜 나타내는 사람들을 間或 보게되는데 이러한 憤怒의 濫發은 그 個人 當事者나 이를 當하게 되는 他人에게 모두 좋지않은 影響을 준다. 憤怒는 그것이 濫發될 때엔 個人的 他人과의 人間關係를 惡化시켜 주고, 社會生活을 不安스럽게 만든다. 子女나 弟子의 不當한 行爲에 對한 父母나 스승의 無節制한 憤怒는 그것이 미움의 動機와 結合한 亂暴한 말과 行動(채찍질이나 毆打나 그 밖의 體罰)으로 나타날 때에는 子女나 弟子와의 關係에서 父母나 스승을 暴君으로 만들어 子女나 弟子의 그릇된 行動을 바로잡기보다는 오히려 子女나 弟子에게 自我閉鎖性과 自我卑下感을 誘發하거나, 아니면 그릇된 反抗心을 助長하거나 하며, 때로는 기껏해야 偽裝된, 盲目的인 屈從을 誘發시키는 등 그들을 비틀어진 人格者로 만든다.

集團의 憤怒의 境遇도 그것이 理性과 紀綱이 없이 群衆心理에 便乘하여 無節制하게 發動될

28) Woodworth, R. S., 1946, *Psychology*,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p. 427

29) Cole, L., *op. cit.*, p. 249



때에는 한 社會와 그 成員들에게 不安과 混亂과 이에서 비롯되는 不幸을 안겨준다는 事實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憤怒는 個人이나 社會에게 이러한 否定的인 影響만을 끼치는 것은 決코 아니다. 個人에 對해 不當히 加해지는 物理的, 心理的, 人格的, 社會的 損傷에 對해서는 斷呼히 憤怒의 反應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個人의 人格的, 社會的 identity와 矜持와, 그리고 福利는 侵害를 免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에 反應行動에 슬기와 節制가 있어야 함은 勿論이다. 社會共同體의 境遇도 個人의 境遇에 있어서처럼 한 社會가 崇尚하는 價値觀이나 行爲規範이나 社會正義 等を 짓밟는 事例에 對해서는 그것이 어떠한 權威階層에 依해서 恣行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斷呼히 排擊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한 社會의 發展은 期約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對해서는 다음 章에서 繼續해서 論議될 것이다.

### V. 憤怒에 對한 聖經의 教訓과 크리스찬의 憤怒

憤怒는 生理的으로 心理的으로 個人을 緊張케 하고 硬直스럽게 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情緒作用이기 때문에 이를 合理的으로 發散하여 解消하는 것이 우리의 精神健康에 뿐 아니라 身體的 健康에도 좋다. 憤怒가 解消되지 않고 억눌리어 蓄積될 境遇에는 stress와 frustration이 繼續 增大되어 그 結果 神經性 消化障礙가 나타나고 憂鬱症狀이 일어나는가 하면, 때로는 強한 hysteria症狀이 發生하는 등 心理的, 生理的 異常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異常症狀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健全한 삶을 爲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우리의 精神生活과 肉身生活을 健全하게 營爲하기 爲해 憤怒를 일으킬만한 要因이 發生할 境遇, 우리는 이를 슬기와 忍耐로 克服하기도 하고, 一旦 憤怒가 發生했을 때엔 이를 合理的으로 表現하거나, 이의 原因과 責任을 自己自身에게서 찾으려 하므로 激한 感情을 억눌러 스스로 消化하거나, 높은 知性이나 信仰의 힘으로 이를 보다 높은 次元의 精神生活에의 契機로 昇華시키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良心과 信仰에 어긋난 不義를 對할 때에는 그것이 어떠한 世上的 權威에 依해 恣行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를 못본체하거나, 容納하거나, 이와 妥協하거나 하지않고 이에 憤然히 맞서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 V-1. 憤怒에 對한 聖經의 教訓

聖經은 決코 우리에게 憤怒를 畧히 發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다. “노엽게 한 兄弟와 和睦하기가 堅固한 城을 取하기 보다 어렵다”<sup>30)</sup>고 한 智慧者의 가르침은 憤怒를 일으킨 他人에 對해 憤怒反應을 抑制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聖經은

30) 잠 18 : 19

無條件 사람의 모든 憤怒를 美化하거나 助長하지도 않는다. 聖經은 憤怒를 일으킬 수 밖에 없을 때는 일으키게 되도록 忍耐로 이를 克服하여 速히 드러내지 말고 더디게 드러내고 또 憤怒를 오래 품지말도록 勸하고 있다. 智慧者는 憤怒를 當場에 發하는 者를 미련한 者로, 그리고 憤怒를 일으키게 한 受辱을 참는 者를 슬기로운 者로 表明하고 있다.<sup>31)</sup> 또 智慧者는 “怒하기를 더디하는 者는 크게 明哲하여도 마음이 燥急한 者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sup>32)</sup> “怒하기를 速히 하는 者는 어리석은 일을 行하고”<sup>33)</sup>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이 一旦 憤怒에 빠지게 되면 理性을 잃어 그 行動이 어리석어진다는 事實을 示唆해 주는 教訓인 것이다. 그리하여 “憤은 殘忍하고”<sup>34)</sup> “怒하는 者는 犯罪함이 많으니라”<sup>35)</sup> “怒하기를 猛烈히 하는 者는 罰을 받을 것”<sup>36)</sup>이라고 가르침으로 憤怒를 내면 그 사람이 殘忍해져서 다른 사람과 다루게 되며 많은 犯罪를 誘發시켜 結局에는 罰을 받게 될 것임을 示唆해 주고 있다. 그리하여 “怒를 품는 者와 사귀지 말며 鬱憤한 者와 同行하지 말라”고 까지 警告하고 있다.<sup>37)</sup> 그뿐 아니라 사람이 일으키는 憤怒의 害毒은 自身의 生命을 해치기까지 한다고 聖經은 宣言하고 있다.<sup>38)</sup>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智慧者는 憤怒를 일으키지 않게 하거나, 그치게 하는 具體的인 方法까지 提示해 주고 있다. 그것은 곧 “남을 柔順하게 對하여”<sup>39)</sup> “그의 허물을 容怒해 주고”<sup>40)</sup> “슬기로서 그를 對하라”<sup>41)</sup>는 가르침으로 表現되어 있다. 要件데 箴言記者가 우리에게 促求하고 있는 것은 忍耐와 中庸의 美德과 슬기라 할 수 있다. 使徒 바울의 다음 教訓도 우리에게 깨우침을 준다. “憤을 내어도 罪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憤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sup>42)</sup> “監督은...急히 憤을 내지 아니하며...”<sup>43)</sup> 란 바울의 教會監督의 資格要件에 對한 教訓 또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示唆하는 바 크다.

#### V-2. 크리스찬의 憤怒

우리 基督教 信仰人格者들은 憤怒라고 하는 人間의 가장 基本的이고 普遍的인 情緒作用에 關한 限 聖經의 가르침에 留意해야 한다. 우리는 世上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憤怒를 惹起시키는 外的挑戰에 不斷히 直面한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自然衝動에 따라 分別과 節制없이 憤怒를 터뜨리는 愚를 犯해서는 안된다. 높은 知性和 信仰의 힘으로 이를 참고 克服할 뿐

31) 잠 12 : 16  
32) 잠 14 : 29  
33) 잠 14 : 17  
34) 잠 27 : 4  
35) 잠 29 : 22  
36) 잠 19 : 9  
37) 잠 22 : 24  
38) 잠 20 : 2  
39) 잠 15 : 1  
40) 잠 19 : 11  
41) 잠 29 : 8  
42) 엡 4 : 26, 27  
43) 딤후 1 : 7

아니라, 보다 높은 精神生活에의 昇華의 契機로 삼는 積極의 姿勢와 智慧가 必要하다. “怒하기를 더디하는 者는 勇士보다 낱고, 自己의 마음을 다스리는 者는 城을 빼앗는 者보다 낱느니라”<sup>44)</sup>는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洞察力을 주는 聖經의 教訓이다. 그렇다, 치밀어오르는 憤怒를 抑制하고 누그러뜨려 克服할 수 있는 길은 오직 自身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다. 城을 빼앗기 보다 더 어려운 自身의 마음의 다스림이야말로 우리의 거친 情緒를 부드럽게 하고 醇化하여 우리로 하여금 高尚한 信仰人格者가 되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義로운 憤怒까지도 無條件 抑制만 해서는 안된다. 人倫을 짓밟고 社會正義를 害치는 者, 그리고 信仰良心과 眞理를 유린하는 事例에 對해서는 그것이 어떠한 地上權勢에 依해 恣行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斷呼히 憤怒를 터뜨려 이에 抗拒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不義가 容納되지 않고 崇高한 良心의 憤怒가 爆發되는 劇的이기까지 한 場面들을 우리는 聖經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同族인 히브리靑年이 壓制者 애굽人에게 虐待 當하는 光景을 보고 그를 죽이기까지 했던 모세의 義憤,<sup>45)</sup> 不義하고 外飾하는 바리새人들과 사두개人들을 向해 毒蛇의 子息들이라고까지 詛呪했던 洗禮요한의 憤怒<sup>46)</sup>와 예수님의 震怒<sup>47)</sup> 聖殿에서 사고 팔던 치사한 장사꾼들의 机을 뒤엎어 버리시던 예수님의 震怒,<sup>48)</sup> 外飾하는 書記官들과 바리새人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詛呪하고 책망하시던 예수님의 震怒,<sup>49)</sup> 예수님을 잡으러 온 大祭司長의 從 “말고”의 귀를 劔을 휘둘러 베어버린 베드로의 勇氣와 憤怒<sup>50)</sup> 等等……聖經은 正當한 憤怒의 爆發場面들을 매우 生々하게, 그리고 劇的으로 描寫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人들이 不義에 對해 當然히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姿勢에 對해 鼓吹해 주고 있는 貴重한 教訓들인 것이다. 이에 비추어 우리 크리스찬들은 現世生活의 渦中에서 人倫과 社會正義를 짓밟고 高貴한 信仰良心과 眞理를 유린하는 行爲에 對해서는 어떠한 迫害를 무릅쓰고라도 이를 默過하거나, 이에 屈하거나, 이와 妥協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에 對해 當然히 義憤을 일으켜 可能한 모든 抵抗을 試圖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와 함께 하시는 公義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어 이 땅에 主의 사랑과 平和와 公義가 保障된 福祉社會를 實現케 하실 것이다.

## VI. 結 語

우리는 情緒의 作用없이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일으키는 憤怒는 人間에게 나타나는 가장 基本的이고 普遍的인 情緒作用의 하나이다. 憤怒라고 하는 情緒作用은 우리에게 恒常 影響을

44) 잠 16 : 32

45) 출 2 : 11, 12

46) 마 3 : 7

47) 마 12 : 34

48) 마 21 : 12

49) 마 23 : 27

50) 요 18 : 10

끼치는데 이 影響은 반드시 否定的인 것만은 아니다. 憤怒는 그 發生要因과 對象과 事情에 따라, 그리고 個人에 따라 여러가지 形態로 表現되는 바, 個人의 良心에서 우러나오는 不義에 對한 正當한 私的, 公的 憤怒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의 發生, 表現이 되도록 抑制되거나, 遲延되거나, 緩化되어야 하고, 一旦 發生時에는 남에게 被害를 주는 亂暴한 言動없이 되도록 短時間內에 解消되어야 한다. 이를 可能케 하는 것은 우리의 높은 知性과 教養과 人格과 信仰 등의 힘이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거친 情緒는 醇化되고 平和해진다. 이리하여 높은 精神生活이 營爲될 때 우리에게는 靈魂의 平和와 健康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人間社會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憤怒의 發生要因이 없는 公義롭고 和平스러운 生의 場이 될 것이다. 그러나 公義를 짓밟고, 良心을 유린하고 眞理를 破壞하는 個人이나 集團의 行爲는 그것이 어떠한 權威에 依해 恣行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默過되어서도, 妥協되어서도 안된다. 참된 크리스찬은 人倫과 社會正義의 保存의 增進에 先鋒이 되어야 하고 良心과 眞理의 守護에 先覺者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不義에 對해서는 憤然히 일어서 이에 抵抗하여 良心의 소리를 發해야 한다.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震怒는 勿論 人間의 私的, 公的 憤怒를 惹起시키는 要因들을 除去시켜 平和스러운 正義社會, 福祉社會를 實現시키는 참된 길인 것이다.



參考文獻

權在源, 1977, 教育心理學, 大邱, 螢雪出版社

金誠一 外 4 人, 1972, 活用教育大事典, 서울, 信進出版社

金貞圭, 孫直銖, 1981, 教育心理學, 서울, 教育出版社

閔榮順, 1973, 教育心理學, 서울, 教育出版社

小見山榮一, 1969, 教育心理學, 東京, 金子書房

門司三省, 1971, 教育心理學, 東京, 法政大學出版部

大瀬甚太郎, 1935, 教育的心理學, 東京, 大倉廣文堂

千輪浩, 1959, 心理學, 東京, 誠信書房

Bridges, K. M. B, 1932, "Emotional Development in Early Infancy," *Child Development*

Calhoun, J. F. and Others, 1975, *Developmental Psychology Today*, Toronto, CRM Random House

Cohen, A. A. N. and Spatz, D., 1948, "Study of Fear and Anger in College Students through the Diary Method,"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Cole, L., 1966, *Psychology of Adolescenc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Dashiel, J. F., 1928, *Fundamentals of Objective Psychology*, Houghton Mifflin Company

Dushkin, D. A., 1970, *Psychology Today*, California, Del Mar CRM Books

Garrett, H. E., 1941, *Great Experiments in Psychology*, New York, D. Appleton-Century Company

Garrison, K. C., 1965, *Psychology of Adolescence*, New Jersey, Prentice-Hall, Inc.

Gates, A. I., 1930, *Psychology For Students of Educa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Gesel, A., Ilg, F. L. and Ames, L. B., 1956, *Youth, The Years from Ten to Sixteen*, New York, Harper & Row, Publishrs, Inc.

Goodenough, F. L., 1934,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York, D. Appleton-Century Company, Inc.

Hilgard, E. R., 1952, *Introduction to Psychology*, Harcourt, Brace & World, Inc.

Hurlock, E. B., 1953,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Krech, D. and Crutchfield, S., *Element of Psychology*, New York, Alfred A. Knight, Inc.

Morgan, C. T., 1956, *Introduction To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Company, Inc.

Perrin, F. A. C. and Klein, D. B., 1926, *Psychology-Its Methods and Principles*,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Sherman, M., 1927, "Differentiation of Emotional Responses in Infants," *Journal of Comparative Psychology*

Tiffin, J., Knight, F. B. and Josey, C. C., 1940, *Psychology of Normal People*, Boston, Health And Company

Watson, J. B., 1925, *Behaviorism*,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Woodworth, R. S., 1946, *Psychology*,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 역사의 내재성과 초월성

- 헤겔의 "역사철학"을 중심으로 -

이 보 민\*

◇ 目 次 ◇

서 언

1. 역사의 학문성에 대한 헤겔 以前的인 모색
2. 역사의 근거로서의 내재성과 초월성 : 헤겔의 시도
3. 헤겔 이후의 역사의 학문성에 대한 다른 태도
4. 결론 : 기독교인에 있어서의 역사의 내재성과 초월성

서 언

본고는 주로 헤겔의 "역사철학"(Philosophie der Geschichte)에서 나타나는 역사의 內在性과 超越性을 살펴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밝혀내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역사의 내재성 및 초월성이 어떻게 파악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그럴 때에 기독교인들에게는 바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생활의 태도가 확립될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역사의 내재성과 초월성이란 인간들의 역사를 학문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와같은 노력이 역사를 바르게 취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보이므로서 신자들에게 정확한 역사 이해와 그에 따른 행동을 촉구하고자 한다.

\* 副教授